

JULY
2023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 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38)

01 HIS Messages

Opening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나타내며

백하민 교장

참 푸르고 즐거웠던 5월과 6월을 지나고 이제 우리는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HIS Connection이 발행되지 않다가 이번에 새롭게 단장되면서 이번 권에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귀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확인하며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올해 주제의 핵심 단어를 사용하자면,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다양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고 참여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일들을 사랑과 선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

더보기

Devotion

성령님-구원

오영준 중고등 성경 교사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어디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지 알고 있나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질문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선행의 결과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한 행동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한 삶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죄를 짓는 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

더보기

The Bible Says About

소셜 미디어

김앤드류 중고등 성경 교사

우리 주위 어디에나 소셜 미디어가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소셜 미디어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이 모든 질문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과 방식을 포함하여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 고린도전서 10:31

우선,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소셜 미디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를 언급하는 직접적인 성경 구절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돕고 인도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

더보기

25번째 개교기념 주간에 있었던 5개의 웃음

김장미 중고등 창의체험활동 부장 교사



그 어느 때보다 화사하고 아름다운 계절인 5월 마지막 주에, 한동글로벌학교에서는 제25주년 개교 기념 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더보기

2023학년도 1학기
HIS Parents T-Time 모임을 마치며

최세연 교수학습센터장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시작되어 4학기째 운영되고 있는 HIS Parents T-Time의 수료식이 2023년 6월 28일 본교 채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동글로벌학교의 학부모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양성하는 사명에 동역하는 기독교학부모로 세워지도록 돕기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HIS Parents T-Time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되기 위하여 소그룹으로 모여서 차를 같이 하듯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러 주제들을 함께 성찰하고 나누며 실천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

이번에도 심화반 멘토로 섬겨주신 박혜경 한동대 학사부총장님께서서는 축하 메시지로 VUCA(Volatility(불안정성), Uncertainty(불확실성), Complexity(복잡성), Ambiguity(모호성)) 시대에 아이들을 VUCA(Vision(비전), Understanding(이해), Clarity(명확성), Agility(민첩성))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여 주셨습니다. ...

더보기

기독교 학부모의 전공필수 과목

김화영, 7학년 국지민 어머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주의 자녀로 오늘도 한걸음 성장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키운 사랑하는 자녀를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님!’

매일 아침 등교 전에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하는 기도이며, 잠을 청할 때 아이의 가슴에 손을 대고 하는 기도이기도 하다. ‘기독교 학부모...’ 그리스도 부모까진 생각해 보았지만 정작 기독교 학부모 라는 위치는 도대체 뭘 어떻게 기도하고 키워내야 하는지 그 위치의 좌표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믿고 행하느냐에 따라 열매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 굉장히 영적인 얘기이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믿고 행하느냐... 그것이 바로 죄인과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갈래인데 기독교 학부모가 기독교 학교에 보내고 나서 무엇을 듣는가? 세상 교육을 듣고 세상 가치로 아이의 진로와 아이의 성품과 실력을 논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며 영적으로 죄인된 길을 가는 것이며, 기독교 학부모 태도로는 ‘잘못 들어선 길’로 가는 것인가? ...

더보기



주님과 함께하는 세 겹 줄의 힘 : 초등 창의 미술 대회

김수민 초등 미술 교사

Creative Art Contest는 초등학생 모두 참여하고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연례 창작 미술 대회입니다. 올해는 “제자(제자도)”를 주제로, 5월 2일 개최되었습니다. ES 학생들은 예수님의 열두제자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창의력, 주제 표현력, 디자인 응용력 등을 통해 다양하게 펼쳐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년 아이들의 창의적인 표현과 아이디어에 놀라며, 우리학교의 정체성을 잘 표현해 내는 수준 높은 창작물을 만날 때면 감사와 은혜가 넘칩니다. ...

더보기



빛났던 스포츠 정신 : 초등 스포츠의 날

하윤수 초등 체육 교사

지난 5월 3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의 전 학년 학생들이 Blue 팀과 Grey팀으로 나누어 스포츠경기를 펼치는 Sports Day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축구와 농구와 피구 경기에서 자기가 속한 팀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이 쉬 때까지 응원을 하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승부에 상관 없이 서로에게 “Good Game!”이라고 인사하며 존중하고 배려하는 훌륭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 5월의 햇살처럼 눈부시게 멋졌던 하루였습니다. ...

더보기



열정의 3점슛-! 초등 SKAC 농구대회

하윤수 초등 체육 교사

매년 우리 학교는 SKAC 대회에 참가합니다. 올해에는 4월20일 부산, 5월16일 대구에서 총 2차례 초등 SKAC 농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5학년 남자A팀, 4학년 남자B팀, 그리고 3-4학년 여자B팀 총 3개 팀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

더보기

HIS GRACE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며, 학교명의 줄임말을 동시에 상징하는 'HIS'와 '은혜(Grace)'의 합성어

리그

여자 B팀

결과

감동 그 자체!

HKB

(Handong Korean Basketball)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농구팀

리그

남자 B팀

결과

3위

SILVERBACKS

가장 강한 고릴라 품종의 이름으로 가장 강한 팀임을 상징

리그

남자 A팀

결과

3위



아이스 스케이트 여행에서 들려온 시원한 이야기

안에스더 초등 3학년 담임교사

“제가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러 갔을 때, 배우는 것 자체가 재미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줄 알아서, 좀 연습해보니 아이스 스케이트도 잘 탈 수 있었어요. 다시 아이스 링크장을 가서 친구들이랑 스케이트를 타고 싶어요. 너무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전보다 더 잘 탈 자신도 있어요.”

-남기온 (3학년)

“8살 때 처음 스케이트를 탄 적이 있는데, 다칠까봐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몇 번 타보고 나니,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자랑할 게 있는데요, 피겨 스케이팅 김예림 선수한테 싸인도 받았어요! 제 스케이트예요. 앞으로도 친구들이랑 계속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고 싶어요!”

-김누리 (3학년)



더보기

늦봄의 멜로디 : 뮤직 쇼케이스

지난 6월 19일 ~ 23일, 초등학교 1 ~ 6학년 전교생은 학교 채플실에서 Music Showcase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Music Showcase 무대에 서기 위하여 아이들은 스스로 혹은 친구들과 함께 팀으로서 부모님과 선생님들 앞에서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선보이며 많은 배움과 성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 많은 인원이 한 팀으로 꾸려지거나, 스스로 할 줄 아는 악기나 노래가 없다고 걱정스러워 하던 팀도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극복하고 결국엔 무대에서 당당하고 멋지게 자신에게 주어진 무대를 펼치며 또 한 걸음 성장해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대견하였습니다. ...

더보기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박지애 음악 교사



아멘을 외쳐라! : 초등 성경 암송 대회

박에스더 초등 디렉터

6월 26일, HIS 초등학생들이 성경 암송 대회를 위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120절을 외우기 위해 팀을 이루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청중들 앞에서 성경 구절을 자신있게 암송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이 구절들을 마음 속에 간직하며 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기도합니다.

MORE

더보기



중고등 수학경시대회

조정우 중고등 수학 교사

지난 5월 8일과 9일 이틀동안 수학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학습 동기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각 학년별 수학 경시대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미국 수학과 한국 수학으로 구분하여 학년별 배운 범위 안에서 통합적인 내용으로 학년별 난이도에 맞게 출제되었습니다. 우수자를 선정하여 6월8일 채플을 마친 후 금상, 은상, 동상을 수여하며 축하했습니다. 앞으로도 수학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보기](#)

어깨 들썩 승리의 트로피 : SKAC 고등 풋살 결승전

Timothy Northe 중고등 체육 교사

우천 시에는 경기가 취소된다는 안내를 많이 보았지만 여기 HIS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예보되었던 비가 내리지 않고 축구하기에 딱 좋은 날이었기 때문이죠. 5월 13일, 8개 학교 23개 팀이 참가한 고등학교 SKAC 풋살 결승전이 한동대학교 캠퍼스 축구장에서 열렸습니다. ...

“처음에 오합지졸이었던 여자 축구팀이 꾸준한 연습과 팀워크로 5월 고등 SKAC 풋살에서 준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발목 부상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복하고, 여러 학년이 섞여 경기를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어요. 함께 땀 흘리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한동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 조성연 (11학년)

“결승전에서 상대팀을 알게 되었을 때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값진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 김예현 (11학년)



[더보기](#)

스승을 위한 독특한 선물 : 2023 스승의 날 행사

배연호 학생부회장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기념하며, 학생회 주최 하에 한동 학생들은 선생님들께 편지와 롤링페이퍼를 써서 드리는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일 아침, 운동장에서는 많은 학년들과 각 학급 학생들이 자신들만의 개성있고 독창적인 선물을 드리며 선생님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

이번 스승의 날 행사는 학생들이 진심으로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개성있는 행사를 직접 준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스승의 날도 기대해 보세요!

[더보기](#)



더 나은 배움과 가르침으로의 초대: PTC

운영실 중고등 교무 디렉터

길었던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학교는 학부모님들을 학교에 초대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5월 19일에 열린 부모-교사 컨퍼런스(Parents-Teachers Conference)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HIS는 매년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 “우리 아이 학교생활은 어떤지?”
- “모둠 활동이나 과제 수행능력은 어떤지?”
- “친구관계는 어떤지?”
- “수업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어떤 점을 도와주면 좋을지?”



우리가 손꼽는 이틀

Timothy Northe 중고등 체육 교사

Blue & Grey Day

중고등 학생들은 4월 말부터 블루와 그레이 두 팀으로 나뉘져 한 달 동안 이 행사를 기다리며 자신의 팀을 홍보합니다. 올해 두 팀의 주장들은 각자를 최고의 팀으로 홍보하기 위한 몇 방법들로 응원전에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

Sports Day

드디어 운동회. 각 팀들은 올해 최고의 팀임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을 다합니다. 5월치고는 더운 날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일정에 학생들은 이 날을 시원하게 끝내기 위한 물싸움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뛰어다니며 서로를 시원하게 해주고, 그 자리를 감히 벗어나는 선생님들까지 시원함에 흠뻑 적셨습니다. ...



더보기

코이노니아의 기쁨: 동아리 엑스포

백하민 교장

올해 중고등 특별 활동의 날에는 'Joy of Koinonia'를 주제로,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고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동아리 엑스포로 개최되었습니다. 'Koinonia(코이노니아)'는 그리스어 단어 κοινωνία에서 유래된 것으로, '친밀한 연합, 상호 공유함, 참여적인 관계'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타내야 할 사랑과 선행의 다양한 모습을 상상하며, 더불어 나누고 즐겨워하는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더보기



미래 과학자들의 세미나: HIS 과학전람회

방선기 중고등 테크놀로지 교사

6월 13일 HIS 과학전람회가 채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짧게는 2~3주, 길게는 1~2년 동안 진행해 온 프로젝트를 전교생과 교사들 앞에서 전시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간 학생들은 로봇, 생명, 심리, 물리, 지구과학, 화학, 전기,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학생들은 과학전람회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문제상황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 과정 안에서 학생들은 과학 기술적인 역량 뿐 아니라 그룹 안에서의 리더십과 의사결정과정도 함께 배우며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지식과 성취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어떻게 전달하고 표현할 지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

더보기



한동 스포츠 리그

고다애 학생회 임원

한동글로벌학교의 전통이자 학년 간의 단합을 도모하는 한동 스포츠 리그(Handong Sports League: HSL)가 6월 한 달간 학생회 주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 준 학생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9학년 이소원 학생은 여자 농구에서 뛰어난 실력을 볼 수 있었고 12학년 이세운 학생은 남자 풋살에서 화려한 발재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경기들보다 더 열정적이었던 것은 각 경기를 뛰는 선수들과 같은 학년 친구들의 엄청난 응원이었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 중고등 전교생이 더욱 친목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이후 펼쳐질 마지막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구두구!

더보기



중고등 부흥회

백하민 교장

6월 23일(금)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본교 채플실에서 있었던 부흥회에는 중고등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HIS 구성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서지훈 중고등 학생디렉터님, 오영준 선생님, Andrew Kim 선생님이 함께 이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특별히 오영준 선생님께서는 학급 경건회 자료를 통해 성령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연속적으로 나눠주셔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에 따라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

더보기



16개의 펜이 만든 첫 번째 뉴스 : 코코보코 독서신문

이희정 사서

올해로 제 3기를 맞이한 우리학교 도서부인 코코보코 학생들의 독서신문을 공유합니다. 5월 26일 동아리 엑스포에 앞서 준비한 도서부의 다양한 활동들을 담아 리더이자 편집인 강수하(12학년)학생 외 15명의 도서부 학생들이 발행한 신문입니다. 우리학교 도서부의 진리를 향한 성실한 활동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신문을 통해 도서관과 더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여러분 손에 쥐어진 휴대폰은 잠시 내려놓고, 아이들이 만든 첫번째 독서신문의 독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더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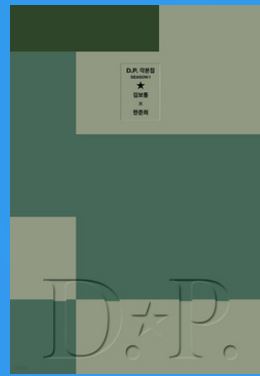
새로운 발견이 모두에게 올림이 되길 : 도서부 학생들이 소개하는 신간



다시, 책으로

깊이 있는 읽기란 무엇인가? <다시, 책으로>는 디지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책 읽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책이다. 이 책은 읽기라는 소중한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작용할 수 있으려면 '읽는 법'을 잊어버려선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디지털 시대 속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독서 습관이 왜 중요한지 뇌가 변하는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수많은 컴퓨터들 사이에서 책을 읽는 것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강수하 (12학년)



D.P. 시즌 1 각본집

넷플릭스 화제의 드라마 <D.P-시즌 1>의 각본집에는 1화에서 6화까지의 대본과 스토리보드, 디자인, 스틸컷, 작가의 인터뷰 등 다양한 읽을 거리와 볼거리가 있다. 글로 읽으며 드라마의 내용을 또다른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 <D.P>는 대한민국 군대의 부조리를 담고 있지만, 비단 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현대 사회의 부당함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사회적 메시지가 강한 드라마를 책으로 읽어보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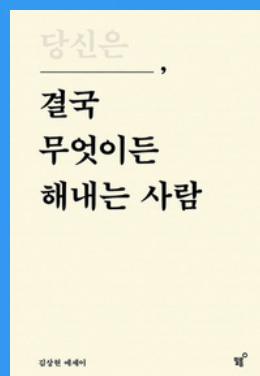
정혜나 (12학년)



순례 주택

"수림아, 어떤 사람이 어른인지 아니? 자기 힘으로 살아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 유은실의 <순례주택>은 75세 순례씨와 16세 수림이를 중심으로 진짜 어른이 된 것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다 말아먹은 시즌 마지막 야구 경기 같은 가족들에게 눈부시게 등장한 구원투수 오수림과 인생의 달인 순례 씨가 만나며 벌어지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여주며 어떻게 사는 것이 어른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성장해야할지 자연스럽게 알려준다. 이 책은 누가 누가 더 어린가 내기하는 세상을 향해 유쾌한 위로를 던진다.

류성의 (10학년)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우리는 결국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10만 부 기념 특별 리커버 에디션! 흔들리고 떠밀리고 넘어져도 나는, 당신은, 우리는 결국 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당신의 이름, 혹은 응원을 보내고 싶은 소중한 사람의 이름을 책 표지의 '밀줄'에 적어 선물해보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양아인 (10학년)



배움으로부터 도주하는 아이들

21세기는 흔히 '배움의 시대' 또는 '평생교육사회'라고도 한다. 이러한 말에는 21세기 사회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낙천적인 희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대부분은 그와 역행하는 생활을 하며 매년 학습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을 배워도 소용없다", "나는 바보라서 배워도 모른다"라는 식의 시니즘은 대체 왜 생겨나며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 속에 깊이 침투하고 있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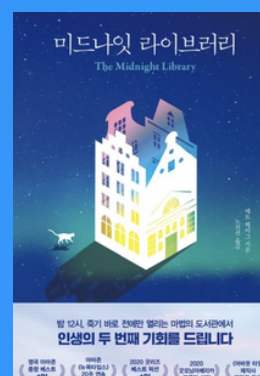
김하늘 (10학년)



나는 나를 돌봅니다

도서 <나는 나를 돌봅니다>는 '나'에 대해 관심이 많은 우리에게 친근히 다가오는 책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또는 '지금의 내가 나에게 만족 할 수 없어서,' 나와 너무 멀어진 나에게 이 책은 말합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충분히 아름답고 예쁘다고. 자신의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친근감있고 현실감있게 알아보세요.

장연우 (7학년)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23시 22분, 죽기에 딱 좋은 시간이라 생각하며 삶을 끝내려 하는 주인공. 그 순간 자신이 그리워했던 사서와 함께 도서관에 와 있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다른 삶을 선택해 살아가기로 결정하는데... 자신의 지난 선택을 후회하는 노라와 그런 노라에게 딱 필요한 도서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이에게 작은 깨달음을 던져줄 만한 책이다.

박청 (7학년)

더보기

HIS가 맺어 준 평생 인연: 졸업생 부부 인터뷰

졸업생
김동건 & 김하람 부부

HIS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동건 | 현재 고정된 나의 모습이 만들어진 곳. 왜냐하면 HIS를 다니기 전 모습과 비교하면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HIS 입학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창 가치관이나 성격이 형성될 청소년 시기 6년간 HIS에 있으면서요. 특히, 자신감, 자존감, 친구들과과의 관계에 끼친 영향력이 커요.

학생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고, 학생회가 결정하는 모든 일에 선생님이 참관하거나 지시를 내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학생회가 결정하는 모든 일, 회의를 하는 모든 과정, 행사를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은 학생회장 하에 학생들끼리만 하고, 그 어떤 선생님도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HIS는 그 나이에 경험하기 힘든 책임감과 리더십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 줬어요. 그게 대학이나 사회에 나가서도 결국에는 여러 분야의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자주, 그리고 다양하게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들은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높여주는 데 정말 큰 도움이에요.

하람 | 저도 동건이랑 비슷한데요, HIS는 '제 인생 가치관을 형성해준 곳'이에요. HIS에서의 베프가 지금 제 베프예요. 모든 것을 다 오픈할 수 있는 인생에서 가장 친한 친구들은 다 여기서 만났어요. 가족처럼 같이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첫 시작점이었어요. 일하면서 어떻게 그리고 뭘 만들어 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HIS에서 했던 프로젝트들의 기획 절차를 대입하면 답이 나왔어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동건: 저는 딱 하나예요. "내려놓고 넓게 보라." HIS가 자유롭고 학생주도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누구나 다 대학 진학의 고민과 고통을 겪죠. 하지만 세상 모두가 똑같이 고민하는 것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HIS는 있잖아요. 성적이나 대학 외에 부수적이라고 느낄 만한 것들에 눈을 돌려 보세요. 이 학교가 가진 장점이잖아요. 하다못해 기숙사 생활, 운동부, 합창 공연 관람, 그 밖에 학교에서 하는 행사 하나하나를 의미있게 생각하세요. "그게 오히려 성적표보다 더 의미가 있더라. 천만 배는 더."

하람: 공부 중요해요. 공부는 기본이죠. HIS에 있는, 우리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대학교 가서도, 아니면 어떤 면접을 보면서도 HIS는 항상 스페셜한 경험이에요.

동건: 이 말 꼭 써 주세요. "우리 말고 그 어떤 졸업생을 데리고 와도 저희랑 똑같은 얘기할 것." 장담합니다. 수업 듣고, 시험 보고, GPA 받는 것 외에, 이 학교만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시도해 보세요.

...

더보기

2023년 1학기 우수 수업도우미

김용진 (11학년)



 왜 지원했고, 어떤 TA가 되고 싶었는지 궁금해요.

중학교 때부터 생명과학을 좋아해서 원래 이 수업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과목 자체를 좋아합니다. 선생님도 좋으시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최대한 보조해 드리면서 수업에서 진행될 실험이나 프로젝트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TA를 하면서 특별히 좋았던 점이 있었나요?

제가 감투를 씌워주면 더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인데요, 책임이 주어지니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특히, 수업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선생님이랑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것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냥 재미 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TA 시작할 때 생명과학 선생님이 밥을 한 번 사주셨어요. 그 때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그 시간이 기억에 남아요. 어떻게 생명과학을 전공하게 되시고 선생님이 되셨는지도 들으면서 선생님에 대해 알게 된 시간이기도 했어요. ...

[더보기](#)



김지연
중고등 과학 교사

용진이는 제 수업도우미에 지원한 몇 학생들 중 하나였습니다. 지원서에는 용진이가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하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 또한 또렷하게 담겨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걸 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도움 준비가 되어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사고, 이번 과학 전람회 참가자들을 위한 안전교육 글을 번역해 주는 것을 성심껏 도와주었고, 용진의의 역할이 제게 큰 도움이었습니다. 수업시간에는 항상 맨 앞에 앉아서 모든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로 임했습니다. 용진이의 적극적인 태도가 기억에 남는데요, 특히, 수업 전에는 연습문제를 풀거나, 수업 중에는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는 등 다른 학생들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자극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한 마디로, 학급에 '좋은' 학생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중등 TA의 역할 | The role of TAs in MS

꼭 학업에 있어서 뛰어나지 않아도 수업 시간 전에 친구들에게 책을 준비하고 앉아있도록 하고, 인쇄물과 자료를 나누어주며 미리 과제 알리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수업 일련의 과정을 돕고 섬깁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교사와의 관계와 교우들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고 그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서 동기부여와 흥미가 생기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등 TA의 역할 | The role of TAs in HS

위의 중등 TA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학업의 이해가 부족한 친구들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 TA는 그 과목에 흥미와 적성이 있는 학생들이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티칭을 하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본인도 적성을 발견하고 더 성장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더불어, 교사 및 교우들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그 과목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며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수업도우미
프로그램이란?



윤미자
중고등 사회 교사

항아리에 담긴 생태계: 3학년 과학 프로젝트

안에스더 초등 3학년 담임교사

5월 22일, 우리 3학년 학생들은 지구 생태계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증명해보는 과학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생태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그 절차를 소개해 드립니다. ...

더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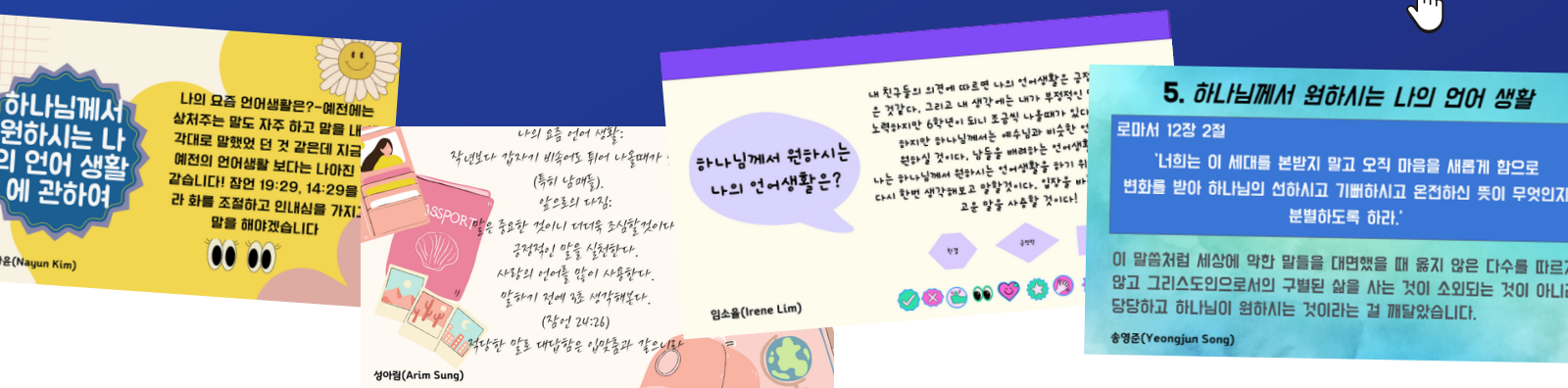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 생활 : 6학년 국어 프로젝트

조하나 초등 국어·사회 교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에 집중하며 저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말을 돌아봅니다. 이에 특별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지난 6월 8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생활에 대해 고민하고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과 관련된 속담과 성경 구절을 참고 삼아 언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자신의 언어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런 자신의 생각을 파워포인트에 정리하여 개인 발표를 해보기도 했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다짐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다짐과 결심에 여러분도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언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아름답게 사용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6학년 학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보기



포장되지 않은 자화상: 중등 미술 프로젝트

김민정 중고등 미술 교사

여러분은 언제 박스 테이프를 사용하시나요? 보통 박스 테이프 (OPP)는 포장에 사용되죠. 용도와 역할을 한정해 버린 일상의 많은 사물과 사람들을 봅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도요. 하지만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MHS는 테이프도 예술적으로 사용해 봅니다! 학생들은 주변을 다시금 살펴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며 작업 속도, 도구 활용 능력에 따라 테이프 아티스트 조윤진의 작업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캔버스 작업'과 '(OHP)필름 작업'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작업했습니다. 여러분 앞의 이 포장되지 않은 자화상들을 통해 예술적 일상을 감상해 보세요!

더보기



가면 나라의 8학년: 중등 미술 프로젝트

홍주형 중고등 미술 교사

나와 친구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를 한 데 담은 가면 프로젝트. 8학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와 '친구들이 생각하는 나'를 주제로 한 자신만의 가면을 만들었습니다. 재료는 점토와 아크릴 물감이 전부예요. 미처 몰랐던 나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는 자신과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독특한 개성을 멋지게 표현한 '가면 나라의 8학년'을 소개합니다. 누군지 함께 맞춰보세요!

더보기



선명한 우리의 열심이 모일 때 : 고등 미술 프로젝트

홍주형 중고등 미술 교사

'청출어람'은 10학년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 달 간 아크릴 기초를 익히고,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관찰하며, 표현의 시간성과 색상을 이해한 학생들은 작가의 표현 기법을 재현해 합동 작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제작 기간동안 기존의 학생들과 올해 새로 입학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서로 소통하며 합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 작업의 매력이죠. 또 아이들은 각자 개별 작업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각각의 열심이 하나로 모여 커다란 작품으로 완성되었을 때의 아름다움은 말로 하기엔 부족합니다!

더보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양성하는



한동글로벌학교

2024학년도 입학설명회

1차 | 2023.08.19(토) 오후 2시
서울 양재 온누리교회 B1 화평홀

2차 | 2023.08.26(토) 오후 2시
포항 한동글로벌학교 113동 F2 채플
(※ 온라인 참석 가능 (Youtube 생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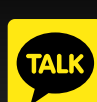
Sign Up



▲ 사전 신청

초 등
중 고 등(054) 260-1756
(054) 260-1734esadmission@his.sc.kr
kidalis@his.sc.kr

HIS

한동글로벌학교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 2023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558, Handong-ro, Buk-gu, Pohang-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글로벌학교
Zip Code: 37554 | 대표전화 : 054.260.1733 | Fax : 054.260.1739 | E-mail : his@his.sc.kr